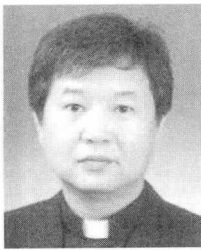


가톨릭정신과 호스피스

이 승 찬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실장 · 본회 지도신부



현 대문명의 이기는 우리의 삶을 보다 운택하게 하고 안락함을 보장해 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락하고 운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선의 노력

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늘 받고있는 도전인 동시에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인의 능력과 건강은 항상 문제가 되며, 현대사회는 일면 질병의 고통이나 죽음을 밀어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오거나 우리 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막상 이렇게 만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거나 애써 몰아내려 합니다.

고통과 죽음에 대해 현대의학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날 의학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의 초기 발견과 획기적인 시술과 수술은 과거의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고 또 이러한 것

들이 새로운 윤리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연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의료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설령 현대의학이 그 성공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학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자명한 일입니다.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나 운명이나 삶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의료인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죽음은 의료행위의 실수이고 수술의 실패이며 질병과의 전쟁에서 패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연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개인의 삶에서 볼 때 죽음은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또 도태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의료인의 한계이며 실패로 여겨집니다. 죽음을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회피하고 멀리해야하는 존재로 바라볼 때 죽음은 우리 삶의 실패이며 한계이며, 삶 또한 이와 더불어 황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삶 자체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됩니다.

말기환자는 자신을 찾아오는 방문자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며 대화의 소재가 메마르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자신을 멀리하고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가 자신에게 던지는 이러한 냉정함과 개인적인 소외감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을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절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절박한 순간을 대면해야 되는 말기환자에게 우리사회는 무심하게도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처한 무기력함, 희망이 없고 치료에 실패했다는 불행감에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도움을 청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느님을 자비하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은 고통받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다가서는 자비심을 실천 덕목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착한 사마리아인’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모습은 이러한 자비심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불쌍한 이, 낯선 이, 가난한 이,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이란 스스로를 모욕하고, 소외시키고 자기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통해서 호스피스 활동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말기의 환자들을 마치 죽은 사람같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 없는 사람으로 사라져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거기에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정신 즉 자비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는 형제애를 찾을 수 있을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죽음의 개별화된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생각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스피스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유대감과 연대감을 다시 찾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호스피스 활동이 사회화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좀더 골고루 넓게 전파되면서 생길 수 있는 순기능 이면에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호스피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하자면 무엇보다도 우선 제도화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복지시설이나 정책사업이 그렇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죽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입니다. 임종자는 각자 개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갖고 있으며 호스피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고통중에 있는 대상자를 한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팀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을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가, 원목자, 자원봉사자, 영양사가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스피스가 제도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역기능을 이런 협

력관계 속에서 가능한한 최소화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없는 특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때로 가장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협력관계는 마치 유리상자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리상자처럼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 또한 협력관계인 것입니다. 호스피스 활동이 갖고있는 그러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도 자기 의견만을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극복하고 항상 새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삶의 방향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임종하는 환자들에게 삶의 고향을 가르쳐주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 또한 그 고향을 찾아가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가톨릭 호스피스가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병자성사나 고해성사들을 거절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가 하느님과 직접 화해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 사람들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수도자나 성직자들과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절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오해에서 오는 의기소침에서 빨리 빠져 나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나 자신의 노력과 애정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절망감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때 우리는 오히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자비로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다같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호스피스 활동이 우리 자신의 선교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